http://www.jsebs.org
ISSN: 2288-3908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23, No.3, August 2018, pp.85-109
https://doi.org/10.7838/jsebs.2018.23.3.085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에 대한 통합적 분석: 태도, 개인규범, 습관을 중심으로

Integrative Analysis on Digital Piracy: Focused on Attitude, Personal Norm, and Habit

최병구(Byounggu Choi)*

초 록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왜 사람들이 불법복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 등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 개인규범, 습관 등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9개의 가설을 수립하고 337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규범을 통해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습관은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made it for people to pirate digital contents easily and quickly. Although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underlying factors that lead to an individual engaging in digital piracy, few studies have provided holistic and integrative view on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build integrative research model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norm activation model (NAM), and habi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s nine hypotheses tha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personal norm, habit,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tests them with survey data collected from 337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ersonal norm, and habit have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of digital piracy while subjective norm does not affect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existing studi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personal norm, habit and behavioral intention.

키워드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 태도, 개인규범
Digital Piracy, Theory of Planned Behavior, Norm Activation Model, Habit, Attitude, Personal Norm

* 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h2choi@kookmin.ac.kr)
Received: 2018-06-04, Review completed: 2018-07-05, Accepted: 2018-07-18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게임, 만화, 음악, 영화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55]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2015년 1조 3,08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 2,010달러로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역시 2019년까지 약 56조 5,510억 달러로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대량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peer-to-peer(P2P) 네트워크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 배포를 매우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통신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digital piracy)를 보다 빠르고 쉽게 만듦으로써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39].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생산 손실은 2조 5193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5]. 또한 2018년 불법복제로 인한 전 세계 온라인 TV와 영화 산업의 손실액이 3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63].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란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 허가 및 보상 없이 백업 이외의 어떤 이유에서든지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문서, 디지털 오디오(음악 및 음성 포함), 디지털 비디오를 복사하는 불법행위([67], p. 438)”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는 인간상호간 행위이론(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42, 49],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44, 50],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ethical decision-making theory)[29, 69],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58, 74],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52, 62],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33], 공평이론(equity theory)[24],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40],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11]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이론은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73]. Lowry et al.[50]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약 30%의 실증 연구가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사용자의 불법복제 행위의도가 불법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간명하고 정교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계획된 행위이론은 불법복제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 수준의 규범이나[61] 과거행위가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16]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복제에 있어

도덕성과 같은 내적 동기(internal motives)가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과거 불법복제 행위가 미래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 기반의 변수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개인의 내적 동기와 과거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관련 기존 연구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CD 혹은 DVD와 같은 채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화된 내용물을 의미한다[32]. 기존 불법복제 관련 연구들은 음악, 문서, 영상,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개별 유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별 유형 간 차이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 유형을 통합할 수 있고 불법복제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56].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몇몇 연구들은 성별, 연령, 문화 등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4, 15]. 예를 들면, Das et al.[20]은 국가 간 e-비즈니스 준비도, 경제지수, 규제지수, 기술지수에 따라 음악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였다. Kini et al.[41]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음악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와 달리 어떤 연구들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43, 51]. 예를 들면, Jain [37]은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어떻게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심리학, 윤리학, 범죄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불법복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3, 29, 36]. Limayem et al.[49]은 인간상호간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애정, 인지된 결과, 사회적 요인 등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실제 불법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들은 불법복제와 관련된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의한 매개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불법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Thong and Yap[69]은 Hunt and Vitell[35]의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의무론적 평가(deontological evaluagtion)와 목적론적 평가(teleological evaluation)가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불법복제와 같은 도덕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ouglas et al.[24]은 공평이론을 기반으로 상호적 공정성(reciprocal fairness),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평성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실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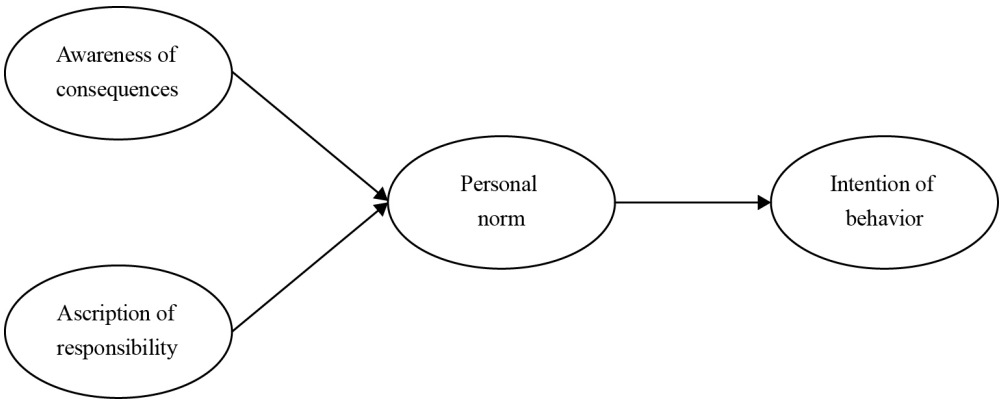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론 기반 불법복제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론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계획된 행위이론은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kbulut[2]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습관과 인지된 위험을 추가하여 태도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d'Astous et al.[19]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요인이 음악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Peace et al.[58] 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기대효용이론과 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요인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요인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3, 13, 28].

그러나 계획된 행위이론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은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르는 동기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주관적 규범 수준에 한정해서 설명할 뿐 도덕성과 같은 내적 동기 수준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61]. 즉 왜 어떤 사용자는 불법복제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적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행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계획된 행위이론은 개인의 과거행위가 미래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16]. 즉 왜 어떤 사용자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이론적 배경

계획된 행위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에 지각된 행위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제안되었다[1].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위해 결정된다. 이때 행위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며 지각된 행위통제는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66]. 계획된 행위이론은 개인의 의지와 함께 스킬이나 자원이 필요한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개인의 행위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모형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된 행위이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규범이 아닌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내적 규범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Figure 1〉 Norm Activation Model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모형으로는 규범활성화 모형(norm activation model)이 있다(<Figure 1> 참조).

규범활성화 모형은 헌혈, 기부, 자원봉사, 친환경제품 이용 등과 같은 친사회적(pro-social) 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으로 Schwartz [60]에 의해 제안되어 교육, 환경, 범죄, 공정무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다[9, 21]. 해당 모형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위는 내재화된 도덕성 혹은 개인규범(personal norm)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개인규범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삼가하게 하는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31, 60]. 개인규범은 특정 행위에 대한 기대, 제재, 의무감 등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는 가를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규범과 같은 사회규범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60]. 이러한 개인규범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이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과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삼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의되는 책임의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에 의해 결정된다[8].

또한 계획된 행위이론은 개인의 과거행위가 미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65]. 예를 들면, Godin et al.[27]은 습관으로 개념화된 과거행위가 계획된 행위이론의 모든 변수들 보다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습관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Triandis[70]의 인간상호간 행위이론이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이 사회적 행위가 개인의식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인간상호간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의식의 통제 수준이 그 행위가 습관화된 정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습관을 개인 행위 설명을 위한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8]. 이에 따라 몇몇 연구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습관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Cronan and Al-Rafee[18]는 28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과거 불법복제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복제 의도가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Nandedkar and Midha[54] 또한 21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습관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개발

3.1 연구 모형

계획된 행위이론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같은 의도적인 사회 행위(intentional social behaviors)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일반화된 이론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14]. Armitage and Conner [6]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계획된 행위이론은 평균적으로 행위의도 변화의 39%와 실제행동 변화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3가지 변수를 통해 행위의도와 실제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간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8]. 나아가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추가 가능성에 매우 개방적이다. 이 이론을 처음 주장한 Ajzen[1]은 행위의도 혹은 실제행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있다면 이를 추가함으로써 계획된 행위이론을 좀 더 정교화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된 행위이론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 행위의도 변화를 설명하는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된 행위이론은 도덕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규범을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손쉽게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용자들은 불법복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변수의 추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연구에서는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의무감 등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다[38, 72].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의 단순 추가만으로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즉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의무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 변수와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규범활성화 모형은 개인의 행위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을 반영한 사회적 규범이 아닌 도덕성과 같은 개인 규범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60]. 즉, 다른 사람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평가하는 주관적 규범과 달리 개인 규범은 개인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계획된 행위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은 개인의 행위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행위가 완전하게 자기중심적인(self-interested) 동기 혹은 도덕성과 같은 친사회적인 동기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모형을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은 과거행위로 대변되는 습관이 실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습관적 행위는 많은 연구에서 행위의도나 실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mberg et al.[8]은 어떤 행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습관적 행위가 개인의 행위를 예측하는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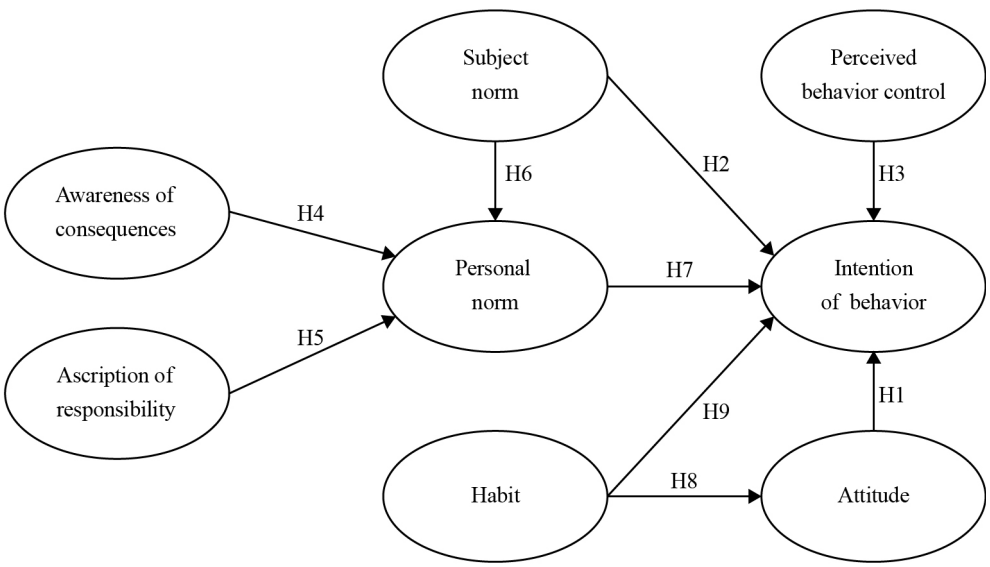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불법복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습관을 포함함으로써 불법복제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Cronan and Al-Rafee[18]는 불법복제 행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의무감보다 습관적 행위가 불법복제 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요약하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3.2 가설 개발

계획된 행위이론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위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결정된다[1]. 이때 행위의도는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의도로 정의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행위의도가 매우 정확하게 실제행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기 때문에[18, 73]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 실제행위 대신 불법복제 행위의도만을 고려하였다.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태도는 개인의 행위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1].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불법복제 태도가 불법복제 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19, 38]. 특히 Peace et al.[58]은 태도를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하였다.



〈Figure 2〉 Research Model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자신의 특정 행위에 대해 갖게 될 의견 또는 기대를 의미하며 그 행동을 수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1]. 이를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적용하면 개인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라 할 수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친구나 동료와 같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을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2, 3]. 예를 들면 Yoon[73]은 주관적 규범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위통제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보다 더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간주되어 왔다[1]. 즉,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 규범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다면 그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8].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이를 적용해 보면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경우 태도나 주관적 규범과 상관없이 불법복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도 지각된 행위통제를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하여 왔다[14]. 예를 들면, Morton and Koufteros[53]은 지각된 행위통제가 음악 파일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H2: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주관적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H3: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규범활성화 모형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감정인 개인규범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이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결과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나 여행지 선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8, 21]. 예를 들면, De Groot and Steg[21]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동차 사용 억제 연구에서 자동차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규범과 결과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복제 행위 역시 규범활성화 모형이 주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개인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회 경제적 결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개인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활성화되어 이를 비도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규범은 또한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인 책임의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64]. 즉, 개인이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해당 개인은 그 행위에 대한 개인규범이 활성화되게 된다. 예를 들면, Shin et al.[61]은 소비자가 요식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수록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농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는 개인규범이 높아짐을 실증하였다. 책임의 귀속과 개인규범 간의 관계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개인이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이를 부도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개인규범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규범은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즉,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68]. 즉, 개인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동료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행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많은 친환경, 여행지 선택 등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과 행위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규범의 매개역할을 강조하였다[23]. Hunecke et al.[34]은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규범과 대중교통의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준거 집단의 주관적 규범이 대중교통 선택에 대한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주관적 규범과 개인규범 간의 관계는 불법복제 행위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이다. 즉 친구나 동료와 같은 준거 집단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개인 역시 이를 부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규범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내적 동기는 개인의 준거집단이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31].

인간은 도덕적 의무감인 개인규범에 근거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거나 개인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기대와 관계없이 내적인 추론이나 반성과 같은 내부 규제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60]. 개인규범과 행위의도 간의 이러한 관계는 대중교통 이용, 유기농 식품 선택 등과 같은 행동 연구에서 널리 검증되어 왔다[34, 64].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면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자, 사회, 또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얻기 보다는 정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규범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5: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감이 증가할수록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규범의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6: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증가할수록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규범의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7: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규범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과거행위로 인해 형성되는 습관은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지시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70].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개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습관을 폭넓게 연구하여 왔다[8, 45]. 불법복제 상황 하에서 이를 해석하면 개인이 과거 불법복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게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불법복제를 하게 되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있어 습관과 태도 간의 이러한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6, 54]. 예를 들면, Limayem et al.[49]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 연구를 통해 불법복제 습관이 불법복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실증하였다.

과거행위의 함수로서 습관은 또한 행위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습관은 미래행위 예측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16]. Yoon[73]은 특히 습관을 부정행위, 절도, 거짓말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핵심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예측하는 데 습관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0]. 개인이 습관처럼 불법복제 행위를 저질러 왔다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얻기 위해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 역시 매우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습관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Cronan and Al-Rafee[18]는 실증 연구를 통해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나 개인규범에 비해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8: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H9: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 도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Table 1> 참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는 소프트웨어[14, 58], 음악[19, 53], 디지털 콘텐츠[18, 38] 등의 기존 불법복제 연구 가운데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태도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포괄하여 4가지 항목의 7점 어의차이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불법복제에 대해 미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의 2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자기효능감과 통제가능성 측면을 포괄하여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행위의도는 미래 불법복제 행위를 할 의사(likelihood) 측면에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는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 끝점으로 하는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규범활성화 모형 변수의 경우 불법복제 행위 연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행 등과 같은 친사회적 연구로부터 수정 인용하였다. 결과에 대한 인식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가 법, 저작권자, 산업에 미치는 결과 측면에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34, 64]. 책임의 귀속은 불법복제 행위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불법복제 행위 감소를 위한 책임감 측면에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25]. 개인규범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측면에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규범활성화 모형 관련 변수는 역시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습관은 불법복제 행동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측정하였다. 기존 불법복제 연구들[49, 73] 뿐만 아니라 습관이 태도나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양한 분야의 기존 연구를[59] 활용하여 개발한 3가지 항목으로 습관을 측정하였다. 습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 끝점으로 하는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설문서는 Appendix에 나타나 있다.

4.2 자료의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예비조사를 위해 편의추출에 의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학생 30명으로부터 설문을 수거하였다. 설문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완성된 최종 설문 바탕으로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345부를 회수하였다(응답률: 69%). 회수된 설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입력단계에서 제외하고 총 33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riteria		Frequency (percent)
Gender (N = 337)	Male	186(55.2%)
	Female	151(44.8%)
Age (N = 337)	10~19	71(21.4%)
	20~29	234(69.4%)
	30~39	26(7.7%)
	40 and above	6(1.8%)
Education (N = 337)	High school student	24(7.11%)
	Undergraduate student	212(62.9%)
	Graduate student	69(20.5%)
	Others	32(9.5%)
Annual Income (N = 337)	Less than $37,000	126(37.4%)
	$37,000~$65,000	98(29.1%)
	$65,000~$93,000	46(6.5%)
	More than $93,000	67(19.9%)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86명(55.2%), 여성이 151명(44.8%)으로 남성 응답자가 다소 많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가 71명(21.4%), 20대가 234명(69.4%), 30대가 26명(7.7%), 40대 이상이 6명(1.8%)으로 나타나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생이 24명(7.11%), 대학생이 212명(62.9%), 대학원생이 69명(20.5%), 기타가 32명(9.5%)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수입을 보면 연 가계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 126명(37.4%), 4,000~7,000만 원이 98명(29.1%), 7,000~1억이 46명(6.5%), 1억 원 이상이 67명(19.9%)으로 나타났다.

5. 결 과

5.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SPSS23과 AMOS 22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문항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과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0]. 분석결과 결과에 대한 인식(AC) 1번 문항과 행위의도(INT) 3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 값과 복합신뢰도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해 확인한다. 집중타당성은 측정문항의 요인적재량(loadings)이 0.7 이상,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26]. 분석결과 책임의 귀속 1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변수 간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Table 2〉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Construct	Items	Loadings	t-value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ATT	ATT1	.760		0.887	0.884	0.659
	ATT2	.781	24.285			
	ATT3	.849	15.350			
	ATT4	.824	15.110			
SN	SN1	.905		0.822	0.835	0.721
	SN2	.851	9.606			
PBC	PBC1	.871		0.906	0.91	0.717
	PBC2	.841	22.060			
	PBC3	.863	21.398			
	PBC4	.823	17.946			
AC	AC2	.845		0.754	0.755	0.606
	AC3	.885	7.607			
AR	AR2	.814		0.719	0.902	0.847
	AR3	.902	3.414			
PN	PN1	.817		0.893	0.894	0.739
	PN2	.840	18.604			
	PN3	.860	19.063			
HA	HA1	.898		0.918	0.92	0.793
	HA2	.889	23.607			
	HA3	.776	21.659			
INT	INT1	.744		0.896	0.897	0.813
	INT2	.735	20.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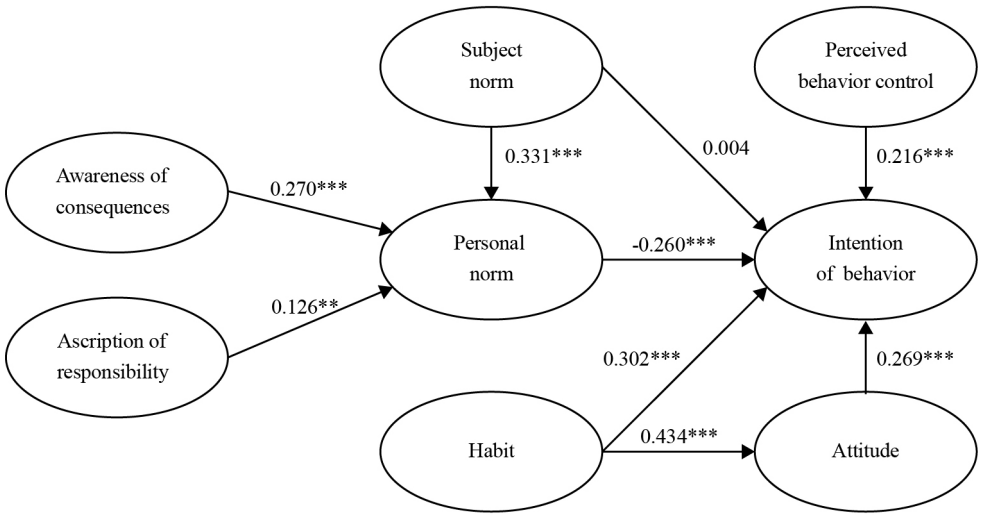
Note: $\chi^2(181) = 446.370(p < 0.001)$, CFI = 0.945, TLI = 0.930, RMSEA = 0.066.
ATT: Attitude,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C: Awareness of consequences, A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N: Personal norm, HA: Habit, INT: Intention of behavior.

비해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0] 30].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각선에 표시되는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를 상회하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평가결과 CFI (comparative fit index) = 0.945, TLI(Tucker-Lewis index) = 0.930이 모두 0.9 이상이고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66으로 기준치인 0.08 이하로 모델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2].

5.2 구조모형

본 연구 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나타난 χ^2 = 571.185($p < 0.001$), CFI = 0.921, NNFI = 0.904, RMSEA = 0.070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3>과 같다.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인 태도는 불법복제 행



Note: $\chi^2(190)$ = 571.185($p < 0.001$), CFI = 0.921, NNFI = 0.904, RMSEA = 0.070
$^{***}p < 0.001$, $^{**}p < 0.01$, $^{*}p < 0.05$.

〈Figure 3〉 Analysis Results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ATT	SN	PBC	AC	AR	PN	HA	INT
ATT	**0.812**							
SN	0.046	**0.849**						
PBC	0.396***	-0.233***	**0.847**					
AC	-0.235***	0.281***	0.003	**0.779**				
AR	-0.299***	-0.011	-0.235***	0.153**	**0.921**			
PN	-0.475***	0.399***	-0.365***	0.377***	0.206***	**0.859**		
HA	0.503***	-0.141*	0.465***	-0.210**	-0.141**	-0.389***	**0.891**	
INT	0.619***	-0.187**	0.534***	-0.220**	-0.190***	-0.572***	0.653***	**0.902**

$^{***}p < 0.001$, $^{**}p < 0.01$, $^{*}p < 0.05$.

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비표준화계수 = 0.269, C.R. = 5.262, p = 0.000), 인지된 행위통제 역시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계수 = 0.216, C.R. = 3.728, p = 0.000).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3은 채택한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한다(비표준화계수 = 0.004, C.R. = 0.076, p = 0.939).

규범활성 모형 변수인 결과에 대한 인식의 경우 개인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비표준화계수 = 0.270, C.R. = 3.663, p = 0.000), 책임의 귀속 역시 개인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계수 = 0.126, C.R. = 2.595, p = 0.009).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인 주관적 규범 또한 개인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계수 = 0.331, C.R. = 5.758, p = 0.000). 마지막으로 개인규범이 증가하면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계수 = -0.260, C.R. = -5.222, p = 0.000). 따라서 가설 4~가설 7 모두 채택한다.

습관의 경우 태도(비표준화계수 = 0.434, C.R. = 9.23, p = 0.000)와 불법복제 행위의도(비표준화계수 = 0.302, C.R. = 6.132, p = 0.000)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8과 9를 채택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습관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모두 유의해야 한다[30]. 분석결과 태도는 습관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Table 4〉 Hypotheses Test Results

Hypothes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 coefficient	S.E.	C.R.	P	Results
H1	ATT → INT	0.269	0.277	0.051	5.262	0.000	Accept
H2	SN → INT	0.004	0.004	0.047	0.076	0.939	Reject
H3	PBC → INT	0.216	0.194	0.058	3.728	0.000	Accept
H4	AC → PN	0.270	0.248	0.074	3.663	0.000	Accept
H5	AR → PN	0.126	0.166	0.049	2.595	0.009	Accept
H6	SN → PN	0.331	0.361	0.057	5.758	0.000	Accept
H7	PN → INT	-0.260	-0.270	0.05	-5.222	0.000	Accept
H8	HA → ATT	0.434	0.515	0.047	9.23	0.000	Accept
H9	HA → INT	0.302	0.369	0.049	6.132	0.000	Accept

〈Table 5〉 Mediating Analysis Using Sobel Test

Path Independent, mediating, dependent	Z	Criteria
HA → ATT → INT	4.5800***	±1.965

6. 논의 및 결론

6.1 논의

계획된 행위이론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가장 핵심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내적 규범이나 습관과 같은 과거행위가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인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는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증가시킴을 파악하였다. 즉, 불법복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불법복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많을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관적 규범은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불법복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8, 47].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을 통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기가 매우 어려운 행위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8]. 오히려 외부 규칙이나 규범을 통해 개인의 내적 규범이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 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7]. 또 다른 가능한 설명으로는 사회적 준거집단의 특성을 들 수 있다. Venkatesh[7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이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를 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준거집단의 압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규범활성화 모형 변수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 귀속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개인규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다[64]. 즉,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가지고 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을수록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집단이 불법복제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그 개인 역시 불법복제에 대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불법복제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개인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높은 규범을 가지고 있을수록 불법복제 행위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습관은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태도(표준화 계수 = 0.515)와 행위의도(표준화 계수 = 0.369)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상호간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의식의 통제는 그 행위가 습관화됨에 따라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0]. 나아가 LaRose et al.[44]은 실증 연구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되어 주관적 행위통제

나 규범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먼저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계획된 행위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을 통합함으로써 의지적(volitional) 차원(태도와 주관적 규범), 비의지적(non-volitional) 차원(계획된 행위통제), 인지적(cognitive) 차원(결과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 귀속), 도덕적(moral) 차원(개인규범)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1]. 둘째, 환경이나 공정무역 등과 같은 영역에서 적용되어왔던 규범활성화 모형을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 영역을 확장하였다. 기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 연구에 있어 도덕성은 주요 변수로 간주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38, 7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변수를 단순하게 추가함으로써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활성화 모형의 도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의 불법복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대 발전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습관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태도나 개인규범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4> 표준화 계수 참조). 대부분의 기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 연구들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태도나 지각된 행위통제에 비해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 행위 연구에 있어 습관을 보다 정교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18]. 특히, 스마트 폰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법복제 행위에 있어 습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첫째, 사용자의 태도 변화를 통한 불법복제 행위의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가설 1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들은 불법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비우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정품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58]. 예를 들면, 많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1분 무료 듣기 혹은 무료 음악과 같은 시도들은 사용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입안자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불법복제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각된 행위통제를 감소시킴으로써 불법복제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가설 3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된 행위통제는 불법복제 행위의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불법복제 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기술적으로 불법복제 행위를 보다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복제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22]. 예를 들면 저작권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를 강화함으로써 불법복제 행위를 시도하는 사용자들의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7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태도와 행위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법복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현재의 불법복제 행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9].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이러한 불법복제 행위가 습관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하거나 처벌의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58].

6.2 결론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쉬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39].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기업과 정책 당국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을 통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 규범활성화 모형 변수, 습관이 불법복제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법복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하교 재학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응답이 10대 및 20대의 젊은 대학생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비록 이러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불법복제 행위가 가장 왕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3] 불법복제 행위는 사실상 모든 계층에서 가능한 행위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Cox and Collins[17]는 음악과 영화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 간에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안점이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간의 불법복제 행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적 차이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문화적 차이는 불법복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73].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사용자만을 설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함으로써 연구의 강건성(robustness)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직업에 따른 불법복제 행위 간의 차이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했다. 습관의 경우 불법복제 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불법복제 행위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불법복제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 179-211, 1991.

[2] Akbulut, Y., "Exploration of the Antecedents of Digital Piracy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mputers & Education, Vol. 78, No. 1, pp. 294-305, 2014.

[3] Al-Rafee, S. and Cronan, T. P., "Digital Piracy: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 towar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3, No. 3, pp. 237-259, 2006.

[4] Al-Rafee, S. and Dashti, A. E.,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the Extended TPB: The Case of Digital Piracy,"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Vol. 15, No. 1, pp. 5-24, 2012.

[5] An, Y., "The Amount of Illegal Copying Loss Was 2.5 Trillion Won," ETNEWS, 2018, http://www.etnews.com/20171016000410.

[6] Armitage, C. J. and Conner, M.,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4, pp. 471-499, 2001.

[7] Bamberg, S. and Schmidt, P., "Changing Travel-Mode as Rational Choice,"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0, No. 2, pp. 223-252, 1998.

[8] Bamberg, S. and Schmidt, P., "Incentives, Morality, or Habit? Predicting Students' Car Use for University Routes with the Models of Ajzen, Schwartz, and Triandi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35, No. 2, pp. 264-285, 2003.

[9] Batson, C. and Powell, A. A.,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T. Millon and M. J. Lerner, eds., pp. 463-484, Wiley, Hoboken, NJ, 2003.

[10] Beck, L. and Ajzen, I., "Predicting Dishonest Action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5, No. 3, pp. 285-301, 1991.

[11] Bounagui, M. and Nel, J., "Towards Understanding Intention to Purchase Online Music Downloads," Management Dynamics, Vol. 18, No. 1, pp. 15-26, 2009.

[12] Browne, M. W. and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K. A. Bollen and J. S. Long, eds., pp. 136-162,

Sage, Newbury Park, CA, 1993.

[13] Chan, R. Y. K. and Lai, J. W. M., "Does Ethical Ideology Affect Software Piracy Attitude and Behaviou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mputer Users in China,"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6, pp. 659-673, 2011.

[14] Chan, R. Y. K., Ma, K. H. Y., and Wong, Y. H., "The Software Piracy Decision-Making Process of Chinese Computer Users," The Information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9, No. 4, pp. 203-218, 2013.

[15] Chiang, E. P. and Assane, D., "Music Piracy among Students on the University Campus: Do Males and Females React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37, No. 4, pp. 1371-1380, 2008.

[16] Conner, M. and Armitage, C. J.,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28, No. 15, pp. 1429-1464, 1998.

[17] Cox, J. and Collins, A., "Sailing in the Same Ship? Differences in Factors Motivating Piracy of Music and Movie Content,"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Vol. 50, pp. 70-76, 2014.

[18] Cronan, T. P. and Al-Rafee, S.,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irate Software and Med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78, No. 4, pp. 527-545, 2008.

[19] d'Astous, A., Colbert, F., and Montpetit, D., "Music Piracy on the Web-How Effective Are Anti-Piracy Arguments? Evidence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 28, pp. 289-310, 2005.

[20] Das, S., Mukhopadhyay, A., and Bagchi, K. K., "National-Level Determinants of Global Music Piracy and Online Music Sal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Vol. 17, No. 1, pp. 6-25, 2014.

[21] De Groot, J. I. and Steg, L., "Mor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Norm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9, No. 4, pp. 425-449, 2009.

[22] Do, K.-H. and Jun, M.-S., "SDRM: The Design and Analysis of Secure DRM Systems Based on PKI Using Steganography,"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8, No. 4, pp. 167-181, 2003.

[23] Doran, R. and Larsen, S., "The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 and Personal Norms in Explaining Intentions to Choose Eco-Friendly Travel O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8, No. 2, pp. 159-166, 2016.

[24] Douglas, D. E., Cronan, T. P., and Behel, J. D., "Equity Perceptions as a Deterrent to Software Piracy Behavior,"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4, No. 5, pp. 503-512, 2007.

[25] Gärling, T., Fujii, S., Gärling, A., and Jakobsson, C.,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Value Orientation on Determinant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23, pp. 1-10, 2003.

[26] Gefen, D., Straub, D., and Boudreau, 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AIS, Vol. 7, No. 7, pp. 1-78, 2000.

[27] Godin, G., Valois, P., and Lepage, L., "The Pattern of Influence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Upon Exercising Behavior-an Application of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16, No. 1, pp. 81-102, 1993.

[28] Goles, T., Jayatilaka, B., George, B., Parsons, L., Chambers, V., Taylor, D., and Brune, R., "Softlifting: Exploring Determinants of Attitud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77, No. 4, pp. 481-499, 2008.

[29] Gopal, R. D., Sanders, G. L., Bhattacharjee, S., Agrawal, M., and Wagner, S. C., "A Behavioral Model of Digital Music Pir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Vol. 14, No. 2, pp. 89-105, 2004.

[30] Hair, J. F., Black, B., Babin, B., Anderson, R. E., and Tatham, R. L.,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2005.

[31] Han, H. and Hyun, S. S., "Drivers of Customer Decision to Visit a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Museum: Merg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Norm Activation Theory,"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Vol. 34, No. 9, pp. 1155-1168, 2017.

[32] Helberger, N., Loos, M. B. M., Guibault, L., Mak, C., and Pessers, L., "Digital Content Contracts for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 36, No. 1, pp. 37-57, 2013.

[33] Higgins, G. E., Fell, B. D., and Wilson, A. L., "Digital Piracy: Assessing the Contributions of an Integrated Self-Control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riminal Justice Studies, Vol. 19, No. 1, pp. 3-22, 2006.

[34] Hunecke, M., Blöbaum, A., Matthies, E., and Höger, R.,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 Ecological Norm Orientation and External Factors in the Domain of Travel Mode Choice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33, pp. 830-852, 2001.

[35] Hunt, S. D. and Vitell, S. J., "A General Theory of Marketing Ethics," Journal oj Macromarketing, Vol. 6, No. 1, pp. 5-16, 1986.

[36] Jacobs, R. S., Heuvelman, A., Tan, M., and Peters, O., "Digital Movie Piracy: A Perspective on Downloading Behavior through Social Cognitive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8, No. 3, pp. 958-967, 2012.

[37] Jain, S., "Digital Piracy: A Competitive Analysis," Marketing Science, Vol. 27, No. 4, pp. 610-626, 2008.

[38] Khang, H., Ki, E.-J., Park, I.-K., and Baek,

S.-G., “Exploring Antecedents of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Internet Piracy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 No. 2, pp. 177-194, 2012.

[39] Kim, M. R. and Kim, T. U., “A Study on the Effect of Ethical Orientation on Digital Pirac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19, No. 1, pp. 77-86, 2016.

[40] King, B. and Thatcher, A., “Attitudes Towards Software Piracy in South Africa: Knowledg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s a Moderator,”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33, No. 3, pp. 209-223, 2014.

[41] Kini, R. B., Ramakrishna, H. V., and Vijayaraman, B. S., “An Exploratory Study of Moral Intensity Regarding Software Piracy of Students in Thailand,”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22, No. 1, pp. 63-70, 2003.

[42] KoKlic, M. K., “Digital Piracy among Adults in Slovenia: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Vol. 18, No. 2, pp. 135-150, 2016.

[43] Lahiri, A. and Dey, D., “Effects of Piracy on Quality of Information Goods,” Management Science, Vol. 59, No. 1, pp. 245-264, 2013.

[44] LaRose, R. and Kim, J., “Share, Steal or Buy?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of Music Download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0, No. 2, pp. 267-277, 2007.

[45] LaRose, R., Lin, C. A., and Eastin, M. S., “Unregulated Internet Usage: Addiction, Habit, or Deficient Self-Regulation,” Media Psychology, Vol. 5, pp. 225-253, 2003.

[46] Lee, Y. and Lee, J., “The Effect of Self Identity and Social Identity on Technology Acceptance,” in Twenty-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01.

[47] Liao, C., Lin, H.-N., and Liu, Y.-P., “Predicting the Use of Pirated Software: A Contingency Model Integrating Perceived Risk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91, No. 2, pp. 237-252, 2010.

[48] Limayem, M. and Hirt, S. G., “Force of Habit and Information Systems Usage: Theory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pp. 65-97, 2003.

[49] Limayem, M., Khalifa, M., and Chin, W. W., “Factors Motivating Software Piracy: A Longitudinal Study,”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51, No. 4, pp. 414-425, 2004.

[50] Lowry, P. B., Zhang, J., and Wu, T., “Nature or Nurture?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That Maximize the Prediction of Digital Piracy by Using Social Cognitive Theory as a Framewor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68, pp. 104-120, 2017.

[51] Ma, L., Montgomery, A. L., Singh, P. V., and Smith, M. 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Pre-Release Movie Piracy on Box Office Revenu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5, No. 3, pp. 590-603, 2014.

[52] Marcum, C. D., Higgins, G. E., Wolfe, S. E., and Ricketts, M. L., "Examining the Intersection of Self-Control, Peer Association and Neutralization in Explaining Digital Piracy," Western Criminology Review, Vol. 12, No. 3, pp. 60-67, 2011.

[53] Morton, N. A. and Koufteros, X., "Intention to Commit Online Music Piracy and Its Anteced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15, No. 3, pp. 491-512, 2008.

[54] Nandedkar, A. and Midha, V., "It Won't Happen to Me: An Assessment of Optimism Bias in Music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8, No. 1, pp. 41-48, 2012.

[55] NIPA, Survey on the Status of Digital Contensts Industry, 2016.

[56] Park, K.-J., "A Study on Effects of Relative Benefits and Costs of Piracy of Digital Conten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7, pp. 489-499, 2015.

[57] Pavlou, P. A. and Fygenson, M.,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Electronic Commerce Adoption: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S Quarterly, Vol. 30, No. 1, pp. 115-143, 2006.

[58] Peace, A. G., Galletta, D. F., and Thong, J. Y. L.,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1, pp. 153-177, 2003.

[59] Pelsmacker, P. D. and Janssens, W., "The Effects of Norms, Attitudes and Habits on Speeding Behavior: Scale Development and Model Building and Estimation,"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39, pp. 6-15, 2007.

[60] Schwartz, S. H.,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Academic Press, Inc., New York, 1977.

[61] Shin, Y. H., Im, J., Jung, S. E., and Severt, K.,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Norm Activation Model Approach to Consumer Behavior Regarding Organic Menu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Vol. 69, pp. 21-29, 2018.

[62] Siponen, M., Vance, A., and Willison, R., "New Insights into the Problem of Software Piracy: The Effects of Neutralization, Shame, and Moral Belief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9, No. 7-8, pp. 334-341, 2012.

[63] Statista. Global Online Tv and Movie Revenue Lost through Piracy from 2010 to 2022 (in Billion U.S. Dollars), 2018,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78338/global-online-tv-movie-revenue-loss-piracy/.

[64] Steg, L. and De Groot, J. I., "Explaining

Prosocial Intentions: Testing Causal Relationship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9, No. 4, pp. 725-743, 2010.

[65] Sutton, S., "The Past Predicts the Future: Interpreting Behaviour Relationships in Social Psychological Models of Health Behaviour," Social Psychology and Health: European Perspectives, D. R. Rutter and L. Quine, eds., pp. 71-88, Avebury, Aldershot, UK, 1994.

[67] Taylor, S. A., Ishida, C., and Melton, H.,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of Digital Piracy," Handbook of Service Marketing Research, R. T. Rust and M.-H. Huang, eds., pp. 437-464, Edward Elgar, Cheltenham, UK, 2014.

[66] Taylor, S. and Todd, P. A.,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6, No. 2, pp. 144-176, 1995.

[68] Thøgersen, J., "Norms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ur: An Extended Taxonom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26, No. 4, pp. 247-261, 2006.

[69] Thong, J. Y. L. and Chee-Sing, Y., "Testing an Ethical Decision-Making Theory: The Case of Softlift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5, No. 1, pp. 213-237, 1998.

[70] Triandis, H. C., Interpersonal Behavior, Brooks/Cole, Monterey, CA, 1977.

[71]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and Davis, F. 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Vol. 27, No. 3, pp. 425-478, 2003.

[72] Wang, X. and McClung, S. R., "The Immorality of Illegal Downloading: The Role of Anticipated Guilt and General Emo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8, No. 1, pp. 153-159, 2012.

[73] Yoon,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thics Theory in Digital Piracy: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00, No. 3, pp. 405-417, 2011.

[74] Zhang, L., Smith, W. W., and McDowell, W. C., "Examining Digital Piracy: Self-Control, Punishment, and Self-Efficacy,"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Vol. 22, No. 1, pp. 24-44, 2009.

〈Appendix〉 Questionnaire

Construct	Items		References
Attitude (ATT)	ATT1	Committing digital piracy is… (not very enjoyable/very enjoyable).	[14], [48], [58]
	ATT2	Committing digital piracy is… (very unpleasant/very pleasant).	
	ATT3	Committing digital piracy is… (definitely bad/definitely good).	
	ATT4	Committing digital piracy is… (definitely foolish/definitely wise).	
Subjective norm (SN)	SN1	People who influence me would think that I should not engage in digital piracy.	[18], [19], [46]
	SN2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would think that I should not engage in digital piracy.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PBC1	If I wanted to, I would be able to acquire digital files illegally.	[38], [53], [57]
	PBC2	If I wanted to, I am confident I could acquire digital files illegally.	
	PBC3	All necessary resources for downloading or sharing digital files illegally will be accessible to me.	
	PBC4	Downloading digital files illegally is completely under my control.	
Awareness of consequences (AC)	AC1	I am aware that my digital piracy influences the government to change intellectual property(IP) laws to protect the related industry. (deleted)	[34], [64]
	AC2	I am aware that when I download copyrighted music, video, or digital files illegally, I hurt the peopl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such digital files.	
	AC3	I am aware that when I purchase copyrighted digital files, I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elated industry.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	AR1	I am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digital piracy on the related industry. (deleted)	[25], [60]
	AR2	I am responsible for reducing digital piracy.	
	AR3	I am responsible for the impact of digital piracy on the related industry.	
Personal norm (PN)	PN1	The next time I download copyrighted music, video, and digital files without permission, I would have a “moral stomach-ache.”	[7], [64]
	PN2	Do you feel a strong obligation not to engage in digital piracy the next time you download music, video, or digital files?	
	PN3	If the next time I download digital files without permission, I would feel that my principles are violated.	
Habit (HA)	HA1	Pirating digital files is a habit for me.	[49], [59]
	HA2	I am addicted to pirating digital files.	
	HA3	Pirating digital files is automatic for me	
Intention (INT)	INT1	I intended to pirate digital files in the future.	[49], [58], [73]
	INT2	If I had the opportunity, I would commit digital piracy.	
	INT3	I would never commit media piracy. (Reverse) (deleted)	

저 자 소 개

최병구	(h2choi@kookmin.ac.kr)
1990년~1994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학사)
1994년~1996년	KAIST 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석사)
1996년~2002년	KAIST 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박사)
2002년~2003년	University of Minnesota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방문연구원
2004년~2008년	University of Sydney,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ies 조교수
2008년~2009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10년~2016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2010년~2016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관심분야	지식경영, 소셜 미디어 어낼리틱스, 디지털 콘텐츠